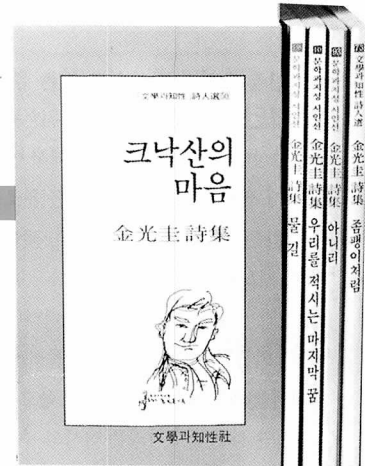


# 시인의 소박한 정취에 취하던 날들의 기억

김광규의 《크낙산의 마음》 외

문학과지성사/A5변형/130면/3000원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면 가장 먼저 책이나 노래테이프를 사곤 했다. 책 사는 일이야, 사두고 읽지 않은 책이 여태 남았을 정도로 책에 욕심내던 시절이었으니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친 한 달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구입하는 책이니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산 책으로 김광규 시집 다섯권, 글논그림발의 만화책 세권, 애니 프루의 소설책 등이 있다. 임희숙과 이승철, 김영임, 천지인 노래테이프도 그때 구입했는데, 음반가게에서 예쁘게 포장해주는 것을 기다리다 받아들고 나오곤 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금세 포장을 풀지만, 조그만 리본 꽃도 붙여주는 '선물포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김광규 시인의 책을 고른 건 순전히 《크낙산의 마음》(문학과지성사) 뒤에 있는 작가의 말, 《평범한 시인의 자서전》 때문이다. “...유교를 믿는 보수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소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인지 나에게 예술가 기질이란 것이 없다.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이 남에게 쉬운 말로 똑똑하게 전달될 때까지 몇 번이고 고쳐 쓴다. 그리하여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는 시를 한편 끝맺은 날은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 마시기도 한다.” 작가는, 특히 시인은 나와 아주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의 감성은 참으로 면밀하고 독특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를 쓰는 감흥이 이리도 소박하다니. 그 글을 거듭 읽고 천천히 흰 종이에 꼭꼭 눌러 써봤다. 그 후로 한달에 한두권,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날이면 시인의 책을 샀다.

애니 프루의 《엽서》(조은수, 바리데기)도 마찬가지다. “나는 필사적으로 글을 써왔고, 지금도 쓰는 데 미쳐 있으며, 앞으로도 쓰고자 합니다”고 말하는 작가의 책을 어찌 손에 들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런데 난 이 책을 읽지 않았다. 그냥 그 말, 그렇게 애써 글을 쓴다는 작가의 말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부자의 그림일기》(오세영), 《간판스타》(이희재), 《목 긴 사나이》(박재동, 이상 글논그림발)도 ‘전심전력한 쓰기’의 소산이다. 이들은 모두 지면의 붓끝이 살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조바심내며 출간일을 기다려 사 모은 초판본에 이제는 세월이 조금 내려앉았다.

지금껏 다른 이를 감동시키는 글은커녕 흡족하고 배부른 글 한 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운 때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글을 한편 ‘완성’ 해, 멀치 노릇노릇하게 구워 초장 듬뿍 찍고, 맑은술 한잔 할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그런 날이면, 이 방 저 방 웃음을 흘려놓을 것 같다. 오랜 친구를 청할까, 대문 창문 모두 닫아걸고 써놓은 글 감출까, 고민도 할 것 같다.

웁트는 봄날 맑은 햇빛이 책을 고르던 그 날과 같아, 시인이 술 한잔으로 자축한 글들을 추억한다. ‘기록을 통해 비로소 현실이 된 시인의 생각과 감정과 체험’을, “쾌적한 마취 상태보다는 깨어 있는 아픔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는 글들을 한자 한자 짚으며 다시 읽고 싶다. 그리고 “시는 그 자체가 언어의 노래”임을 절감하고 싶다. —차정신기자

웁트는 봄날 맑은 햇빛이 책을 고르던 그 날과 같아, 시인이 술 한잔으로 자축한 글들을 추억한다. ‘기록을 통해 비로소 현실이 된 시인의 생각과 감정과 체험’을, “쾌적한 마취 상태보다는 깨어 있는 아픔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는 글들을 한자 한자 짚으며 다시 읽고 싶다. 그리고 “시는 그 자체가 언어의 노래”임을 절감하고 싶다. —차정신기자

## 재직근로자를 위한 무료교육 특강(노동부 지원) 수료 후 50-90% 수강료 환급, 야간 19:00-21:30, 월수금/화목토

언론/출판/편집기자

DTP/MACINTOSH

WEB DESIGN

3D-MAX

그래픽디자인(illustrator/Photoshop), DTP(QuarkXpress), 출판기획제작과정, 웹디자인, 3D-MAX

\* 편집정규과정(5개월, 월-금):출판 편집실무이론, Macintosh DTP \* DTP전문과정(3개월, 월-금):QuarkXpress, Illustrator, Photoshop  
\* 3D-Max 전문과정(3개월, 월-금):3D Modeling, 3D Animation, Portfolio \* Computer Graphics 과정(5개월, 월-금):컴퓨터그래픽스  
응용 기능사 필기/실기 대비과정  
취업처 : 출판사,잡지사,신문사,기업체홍보실,편집대행사,광고대행사,기획회사,학습지,협회,  
웹디자인업체,홈페이지제작 · 관리업체,웹호스팅업체,사이버쇼핑몰,e-Book,애니메이션업체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2호선 5번 출구 · 5호선 6번 출구에서 50미터 당산우체국 옆 '호서빌딩'  
Tel:(02)672-1841-2, 2633-1881-2/www.hoseo.co.kr

서울편집디자인스쿨

(주) 호 · 서 · 교 · 육 · 문 · 화